나가하마 철도 스퀘어

나가하마 철도 스퀘어에는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실제로 탑승하여 견학할 수 있는 폐차된 기관차가 있습니다. 초기 일본의 철도 여행과 수송, 상업의 연결 지점인 나가하마의 역할을 다루는 전시도 있습니다.

박물관 입구는 1882 년에 완성한 붉은 벽돌의 역사입니다. 이 건물은 1884 년부터 1899 년까지 비와코 호수와 동해를 잇는 노선의 남쪽 종착역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. 19 세기 후반에 세워진 역사에는 오래된 생활용품, 매표소 재현, 당시의 복장을 한 역무원과 여행자를 등신대 인형으로 만들어 당시의 매력을 현대에 알리고 있습니다. 인접한 JR 호쿠리쿠 본선에서는 현대의 전철이 지금도 덜컹덜컹 달리며 분위기를 돋우어 줍니다.

구 역사 뒤에 있는 2 개의 건물도 나가하마 철도 스퀘어 시설입니다.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큰 전시 홀이며, 현재의 나가하마 지역을 모티브로 한 미니어처 철도 모형을 비롯해, 나가하마 철도 여행의 발전을 보여주는 디오라마와 일러스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일본 철도의 역사적, 기술적 배경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, 다언어 음성 가이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
가장 안쪽 건물에는 1942 년에 제조된 검은 D51 증기기관차와 1957 년에 제조된 빨간 ED70 전기기관차 2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차장실에 들어가 제어장치를 관찰하거나, 석탄을 넣는 화실도 엿볼 수 있습니다. 또한, 2 층 데크에 올라가면 기관차를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.